

# 二葉亭四迷의 번역 작품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의 한자표기

- 『あひゞき』의 초역과 개역 원고를 중심으로-

현 영 미\*·이 경 규\*\*

(e-mail: sampras789@naver.com · lk5120@deu.ac.kr)

---

## 目次

---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의 검토
  3. 二葉亭四迷의 언문일치와 번역
  4. 『あひゞき』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의 한자표기
    - 4.1 초역과 개역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의 대조
    - 4.2 한어 오노마토피의 조어법
  5. 나가며
- 

## 1. 머리말

본고는 일본 명치기의 대표적인 언문일치 소설 『浮雲』로 유명한 二葉亭四迷의 번역 작품 『あひゞき』에 나타나는 오노마토피의 한자표기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あひゞき』는 러시아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Ivan Sergeevich Turgenev)의 단편소설로 二葉亭四迷가 『浮雲』 2편과 3편을 집필하는 사이에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번역 소설 『あひゞき』는 축어역(逐語訳)<sup>1)</sup>으로, 『浮雲』보다 한 층 더 현대구어적 문체로 번역이 이루어져, 당시 번역사상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명치기의 문학작품은 二葉亭四迷를 비롯한 언문일치체 작품이 성행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충실히 맞추어 번역하는 것을 일컬음.

二葉亭四迷는 명치39년에 발표한「余が言文一致の由来」에서 언문일치에 대해「国民語の資格を得ていない漢語、日本語にならぬ漢語はすべて使はない。」라며 二葉亭 자신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언문일치체가 서양 문학작품의 번역에 끼친 영향을 표기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일상적이고 서민적 성격이 강한 구어체인 오노마토펜은 표기면에서 언문일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あひゞき』는 명치 21년과 29년, 二葉亭四迷에 의해 두 차례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역과 개역 원고<sup>2)</sup>를 대조함으로써 언어학·번역학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二葉亭四迷 작품의 언문일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小野基(1963)<sup>3)</sup>, 나공수(1997)<sup>4)</sup>, 佐藤友紀(2006)<sup>5)</sup>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언문일치체의 역사적 전개와 문장사적 관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문말표현 및 어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小野基는 二葉亭四迷의 번역 작품 『あひゞき』의 문장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문을 대상으로 문장의 길이를 비롯하여, 구점(句点)의 종지부, 품사별 어휘 빈도수 등을 초역과 개역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초역에서의 구어체는 언문일치체의 영향으로 한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나표기가 두드러진데 반해, 개역에서는 후리가나에 의한 이중표현의 한어가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二葉亭四迷가 말하는「일본어로서 일반화 하지 않은 한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준(規準)은 후리가나를 배제하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공수는 『あひゞき』 『めぐりあひ』에 대한 개역 의의를 밝히고자 문장 전체의 어휘와 어법을 조사하였다. 어휘에서는 한어의 고유어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초역에서 비교적 다용되었던 한어 사용이 개역에서는 대부분 고유어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법에서도 마찬가지로「如し-ようだ」「ず、

2) 『あひゞき』의 초역 원고는 명치 21년 잡지『国民之友』제 25호와 27호에 연재되었으며, 개역 원고는 그로부터 8년 후인 명치 29년 단행본『片恋』春陽堂에 실렸다.

3) 小野基(1963)「翻訳文における言文一致について-二葉亭初期翻訳文章の分析-」『国語教育研究』第8集

4) 나공수(1997)「『あひゞき』『めぐりあひ』の改訳の意義-文語から口語への移動-」『人文科学研究』第26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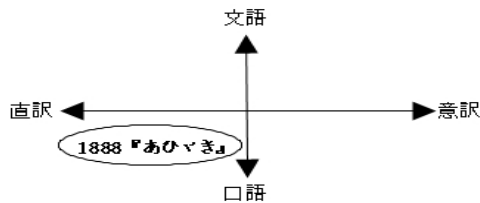
5) 佐藤友紀(2006)「明治期における擬音語・擬態語の漢字表記」『日本アジア研究』第3号

ぬ-ない」 「のみ-ばかり、だけ」를 대상으로 초역과 개역 원고를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초역은 언문일치를 시도한 문장이라고는 하나 문장 전체의 경우 문어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개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의 조동사 「ず、ぬ」 등의 증가하여, 문어적 요소를 완전하게 무시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佐藤友紀(2006)의 연구에 의하면, 명치기 당시의 의음어·의태어의 표기 선택은 잡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의 기준 하에 쓰이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명치기 오노마토펬 한자표기 특징으로 「莞爾」 「快然」와 같이 중국어 오노마토펬 조어법에 기인한 한어오노마토펬의 사용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莞爾」 「快然」와 같이 「-爾」 「-然」 등의 접미사 형과 「彷徨」 「繁々」 등의 접어형, 그리고 「肥滿」와 같이 한어 「肥滿」에 오쿠리가나 「り」의 접속형태 등 여러 형태의 표기가 나타난 점을 들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한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새롭게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다수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의음어·의태어의 한자표기에 대한 조어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 3. 二葉亭四迷의 언문일치와 번역

명치기 번역의 다원시스템은 크게 「번역-창작문학」이라는 대립관계가 있으며, 번역시스템은 다시 「직역-의역」이라는 대립관계가 생성된다. 아울러 번역시스템 내부에는 「문어역(文語)-구어역(口語)」 등 다양한 대립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림 1〉 『あひゞき』의 번역 시스템 배치

二葉亭四迷가 번역한 『あひゞき』를 이러한 번역 시스템에 대입시켜 배치하게 되면 〈그림 1〉과 같다. 二葉亭四迷는 「余が翻訳の標準」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옮기기 이전에 음조(音調)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원문에 쉼표가 3개, 마침표가 1개라면 번역문에서도 쉼표

를 3개, 마침표를 1개로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二葉亭四迷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문일치는 한자·한어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언문일치체 소설인 『浮雲』에서는 완전한 언문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半沢幹一(1988)<sup>6)</sup>의 연구 결과인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 『浮雲』와 『あひゞき』의 한자표기율

浮雲(명치20~22)		あひゞき	
		초역(명치21)	개역(명치29)
제1편	42.3%	28.1%	36.2%
제2편	38.4%		
제3편	37.4%		
평균	39.3%		

『浮雲』의 평균 한자표기율은 39.3%인데 비해, 동시대에 번역되어 발표된 『あひゞき』의 초역의 경우는 28.1%로 전자가 후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언문일치의 시범단계로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창작소설보다 번역소설에 철저한 언문일치를 행하고자 한 역자의 문장의식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명치 29년에 간행된 『あひゞき』 개역은 언문일치가 일반화 된 시기에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太田紘子(2000)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太田紘子は 『あひゞき』의 본문 전체를 어종별로 나누어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초역보다 개역의 한어 사용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7)</sup>

언문일치체가 정착된 시기에 개역된 『あひゞき』가 초역에 비해 한어 사용이 낮아진데 반해, 한자표기 비율이 36.2%로 높게 나타난 것은 오노마토페 표기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あひゞき』에 등장하는 오노마토페의 표기를 중심으로, 한자·한어 사용양상을 초역과 개역 사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4. 『あひゞき』에 나타난 오노마토페의 한자표기

먼저, 二葉亭四迷의 『浮雲』에 나타난 오노마토페의 한자표기율은 전체의 42.22%를 점하고 있다.<sup>8)</sup> 동시대에 발표된 『あひゞき』 초역과 개역 원고에 나타

6) 半沢幹一(1988) 「二葉亭四迷の漢字-『浮雲』における字句-」 『漢字講座9 近代文学と漢字』 明治書院

7) 초역의 전체어수 166語(7.2%), 별개어수 112語(9.62%)

개역의 전체어수 137語(6.20%), 별개어수 87語(8.43%)

난 오노마토피의 표기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2> 과 같다.

<표2> 『あひゞき』에 나타나는 오노마토피

표기		초역		개역	
		전체어수	비율(%)	전체어수	비율(%)
가나	히라가나	17	30.36	26	32.91
	가타카나	25	44.64	1	1.27
한자		14	25.00	52	65.82
합계		56	100	79	100

조사 결과, 초역에 비해 개역의 오노마토피 한자표기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역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의 한자표기에 있어 첨삭된 경우가 빈번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일한 문장의 실례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4.1 초역과 개역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의 대조

다음은 『あひゞき』 초역과 개역 원고의 동일한 장면에서 나타난 오노마토피의 예이다. (이하, 초역은 ●, 개역은 ◎로 표기한다.)

- (1) ● 隈なくあかみわたつたさのみ繁くもない樺のほそへことした幹は思ひがけずも白絹めく、やさしい光澤を帯び、地上に散り布いた、細かな、落ち葉は俄かに日に映じてまばゆきま  
こんじき かしら での金色を放ち、頭をかきむしつたやうな、「ペアポロニク」のみごとな茎、加之も熟え過ぎた葡萄めく色を帯びたのが、際隈もなくもつれつからみつして、目前あたりに透かして見られた。或はまた四邊一面俄かに薄暗くなりだして、瞬間に物のあいろも見えなくなり、樺の木立ちも、降り積つた儘でまだ日の眼に逢はぬ雪のやうに、白くおぼろに霞む。  
きら／＼ たつ かば ほそ みき しらぎぬ やさ つや お
- ◎ 燦爛そことなると、むらへおちゝと立た樺の細い幹がふと白絹のやうな柔ほしい光澤きふ まだら きんいろ ひか あたま もじや／＼を帯びて、其処らなに落散つた葉うつくが急ながに斑ちくに金色も あきに光る、そこで頭つの茸す々ふだうしたペアポロニクいろの美しい長い茎はでしまでが最もつう秋はだけに熟え過ぎた葡萄のやうに色いろづいて、際隈もなく纏まとれつ絡からみつして目前あたりに透いちめんいて見える、かと思ふとまた四邊一面に急きふに薄青うすあをくなつて、瞬またく

8) 현영미·이경규(2012) 「二葉亭四迷 『新編 浮雲』에 나타난 오노마토피의 한자표기에 관한 일고찰」 일본어교육학회 제61집.

間まにきら／＼煌々ところした所が減なくなつて了しまへば、樺かはの木立こたちも光澤つやが失うせて、宛然まるでまだ冬ふゆの冷つめたいちら閃ひかけつうく日光ふを受けぬ降ゆきりたての雪なにが何ぞのやうしろ／＼に白々しろ／＼となつと。

용례(1)은 동일한 장면의 초역과 개역인데, 오노마토페의 사용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초역에서는 「ほそへ」 단 1회 사용에 비해 개역에서는 「きら／＼燦爛」 「むらへ」 「ふと」 「むじゃ／＼茸々」 「きら／＼煌々」 「しろ／＼白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노마토페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한자표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개역에 사용된 「むじゃ／＼茸々」 「きら／＼煌々」 「しろ／＼白々」 「きら／＼燦爛」는 중국 한어(漢語)의 영향을 받은 의태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한어 오노마토페로 칭함) 「きら／＼隈なくあかみわたつた → きら／＼燦爛」 「むじゃ／＼かきむしつた → むじゃ／＼茸々」 「しろ／＼物のあいろ → きら／＼煌々」 「しろ／＼白く → しろ／＼白々」와 같이, 각각 초역의 구(句) 또는 절(節)에 해당하는 부분이, 개역에서 한어 오노마토페로 나타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먼저, 초역이 게재된 잡지 『國民之友』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國民之友』의 문장은 전체적으로 딱딱한 논설체로서, 한자를 적극적으로 다용하였으나 후리가나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었다.<sup>9)</sup> 따라서 초역 원고의 오노마토페는 복잡한 한자 표기를 배제하고 가나표기가 주를 이루었다. 한어 오노마토페의 가장 큰 특징은 등장인물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sup>10)</sup> 『あひゞき』는 자연풍경의 묘사와 젊은 남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작품으로, 二葉亭四迷는 8년 후 다양한 한어 오노마토페를 사용하여 개역한 원고를 단행본 『片恋』에 게재하게 된다.

아울러 二葉亭四迷는 낭독형식을 중요시 여겼던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언문 일치 또한 읽어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熟字訓·熟字音を 다용하였다.<sup>11)</sup> 따라서 부분 루비(パラルビ)형식이었던 초역이, 개역에서는 총루비(総ルビ)형식을 취하여 쉽게 낭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 少女は起き直つた。何となく心おくれのした氣色。ヒタと視詰めた眼ぎししにをどをどした所も有つた、心の焦られて堪へかねた氣味も見えた。しげみを漏れて男の姿がチラ

9) 후리가나 대응 또한 音読み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10) 현영미·이경규(2012) 「二葉亭四迷『新編 浮雲』에 나타난 오노마토페의 한자표기에 관한 일고찰」 일본어교육학회 제61집. 현영미·이경규의 연구에 따르면 한어 오노마토페는 대부분의 경우 등장인물의 심정표현에 있어 다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太田絃子(2000) 『二葉亭四迷『あひゞき』の語意研究』和泉書院 pp.30-31

り。少女はそなたを注視して、俄にハツと顔を赧らめて、我も仕合とおもひ顔にニツコリ笑つて、起ち上らうとして、フまた萎れて、蒼ざめて、どきまぎして、

○ 少女は起直つて、何となく氣怯がした様子で、傍眼も触らなかつたが、眼差はきよ  
 ときよとして、早く逢ひたいで炎えるやうになる。繁みを漏れて男の姿が隠現するのを視  
 て、はツと顔を赧らめて、さもさも嬉しうに嫣然して起上らうとしたが、ふと復た萎れて、  
 蒼ざめて、狼狽して、

『あひゞき』의 초역과 개역 모두 원작에 충실한 번역이며, 서술이 빠진 부분도 문(文) 전체가 생략된 부분도 없다. 하지만 한 문장의 길이를 살펴보면 용례(2)와 같이 초역 5문장, 개역 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초역의 두 문장이 개역에서는 한 문장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少女」와 같이 중복되는 어휘를 개역에서 생략하는 대신 「방긋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오노마토펬 「ニツコリ」는 여성의 경우 한어 「嫣然」로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 하였다. 이외에도 초역의 「チラリ」를 개역에서 「隠現」로, 「どきまぎ」는 한어에 고유어 오노마토펬가 대응된 「狼狽」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역의 「どきまぎ」는 「どきまぎ」의 오류로, 초역이 간행되어 게재된 『国民之友』에는 가나사용, 청·탁음, 마침표 사용에 있어 오류가 많았다.

- (3) ● 少女はブルと震へた。
- 少女は慄然とした。
- (4) ● 「アクリーナ」はその手をソツ肩から外して、おづ接吻した。
- 少女は密と其手を外して、拵々接吻する。
- (5) ● 「あした!」ト少女はビツクリして男の顔を視詰た。
- 「明日!」と吃驚して男の顔を視た。

용례(2)의 「ニツコリ」 「チラリ」를 포함하여 용례(3)~(5)에서 알 수 있듯이, 『あひゞき』의 초역에 나타난 오노마토펬의 대다수는 가나표기로 나타났다. 이

12) 太田紘子(2000)의 『あひゞき』 초역과 개역의 문장 수(數)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초역 191文, 개역 168文으로 23文의 차이가 있다. 나아가 러시아 원문은 185文으로 문장 수의 측면에서는 초역이 원전에 가깝다.

는 초역에서는 구어체인 오노마토페의 언문일치를 가나사용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세밀한 묘사를 필요로 하는 오노마토페의 표현에 있어 가나를 중심으로 하는 표기법은 정보량과 표현성이라는 점에서 부족하다. 이로 인해, 개역에서는 초역의 가나표현이 한자와 후리가나 표현으로 치환되고 있는 용례가 대부분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특히 위와 같이 등장인물에 대한 심정표현의 묘사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어 「慄然」「怖々」「吃驚」과 후리가나의 조합으로 구어와 문어를 근접시키려는 작가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 (6) ● 「ト噺をして聞かしても」ト「ヴキトル」は寢返りを打ツて、「無駄か。お前はなにや空々寂々きかだ」。
- ◎ 「と話して聞しても」と寢返りを打つて、「無駄か。お前ね かへ うにや空々寂々むだ まだ。」
- (7) ● 「眼鏡」と「ヴキトル」は傲然めがね がうぜんとして答へた。
- ◎ 「眼鏡」、と傲然こたとして答へた。
- (8) ● 何処どこともなく得々うぬぼとした所ところが見透かされて、憎みかつた。
- ◎ 得々まことと己惚れてゐる所つらもちよいちよい見えて、誠まことに面つらが憎にくかつた。

용례(6)~(8)은 초역과 개역 원고에 모두 사용된 한어 오노마토페이다. 二葉亭四迷는 「余が言文一致の由来」에서 밝힌 바와 같이, 「国民語の資格を得ていない漢語は使はない、磊落という語もさっぱりしたといふ意味ならば、日本語だが、石が転つてゐるといふ意味ならば日本語ではない。」라고 언급하였다. 위의 용례 「空々寂々」「傲然」「得々」를 초역 원고에 사용한 것은 당시 「国民語の資格」을 획득하여 일본어화 된 한어로 판단한 작가의 언문일치에 대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 4.2 한어 오노마토페의 조어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茫然」「煌々」「燦爛」등의 한자는 일견, 「ぼんやり」「きらきら」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표기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오노마토페에 사용된 한자의 본래 어원은 중국어 조어법 영향을 받은 오노마토페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13)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였음.

14) 한어의 판단은 이인순(2005) 『漢語形容動詞辭典』 J&C를 참고로 하였다.

이 사진은 小学館 『日本国語大事典』, 三省堂 『時代別国語大事典』, 京都大学蔵本 『交隣須知』에서 한어형용동사만을 채집하여 간행한 사전이다. 한어오노마토페이는 중세이후 夕利用형용동사로



이와 같이 중국어를 기원으로 하는 오노마토편에 대해 金田一春彦(1979)는 한자의 수에 의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sup>15)</sup> 특히 명치기 오노마토편의 한자표기 대부분은 한자 2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あひゞき』에 나타난 한어 오노마토편 역시 2자로 구성된 용례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金田一春彦의 분류법 중 「漢字2字のもの」의 한어 오노마토편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あひゞき』에 나타난 한어 오노마토편의 사용양상은 다음의 <표3> 과 같다.

<표3> 『あひゞき』에 나타난 한어 오노마토편

		초역		개역	
		전체어수	별개어수	전체어수	별개어수
1자 한자		1	1	9	7
2자 한자	「-然」	4	3	17	13
	「-々」	9	6	20	16
	쌍성	0	0	1	1
	첩운	0	0	3	3
	기타	0	0	2	2
계		14	10	52	42

먼저, <표3>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후치사 「-然」을 동반한 한어 오노마토편의 사용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전중국어 조어법에 기인한 것으로 한자에 부사적 접사 「-然」이 결합된 형태이다. 본래 「-然」은 「そのよう」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비유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한자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폭넓은 표현력과 세밀한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角川賢一은 부사 또는 형용사로서 사용하던 의식이 역사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然」 본래의 의미인 「~のよう」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접미사로서의 역할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6)</sup> 小野寺学(1998)의 연구에 의하면 「-然」은 명치중기 이후 사전 등록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あひゞき』 초역과 개역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然」이 후접하는 오노마토편은 초역 원

서 출현하였으며, 최근 사전에서는 ト・タル 활용 형용동사로서 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15) 金田一春彦(1979) 「擬音語・擬態語概説」 『擬音語・擬態語辞典』 角川小辞典, pp.12-13

└ 漢字1字のもの

└ 漢字2字のもの - ① 「-焉」「-乎」「-爾」「-如」「-若」「-然」의 形のもの

| ② 同じ語根を重ねたもの

| ③ 同じ子音の拍を重ねたもの

| ④ 同じ韻をもつ拍を重ねたもの

└ 漢字3字のもの

└ 漢字4字のもの

16) 角川賢一(1993) 「日本語の「擬似オノマトペ」-日本語と中国語の接点-」 『オノマトピア』 勁草書房, p.197

고에서 단 3語에 그치고 있다.

(9) ● 力なきうに両の手を膝に落して、端然と坐してゐた。

その愁然とした眼付のうちなさげを含め、やさしい誠心<sup>まごころ</sup>を込め、吾仏とあふぎ敬  
ふ氣ざしを現はしてゐた。「眼鏡」と「ヴェクトル」は傲然として答へた。

용례(9)는 초역에 사용된 「-然」을 동반한 한어 오노마토펬이다. 「-然」은 読み와 표기 면에서 두 가지의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음어(字音語)로 사용되는 경우와 후리가나가 한자의 자음(字音) 혹은 자훈(字訓)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이다. 위의 용례 「端然」 「愁然」 「傲然」은 각각 「단정하고 정돈된 모양」 「슬픔에 잠긴 모양」 「태도가 거만하거나 오만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작가의 의도대로 읽기 위해서는 후리가나가 유용하나 위의 경우에는 한어만으로 나타나 있다. 통상 후리가나의 역할은 난독(難読)한자에 대한 読み를 돕거나, 특정 한자의 読み를 한정하기 위함이다. 「端然」 「愁然」 「傲然」에 후리가나가 없는 이유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초역이 게재된 『国民之友』의 주된 독자층이 사상가 및 언론가와 같은 교양층을 염두에 둔 잡지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리가나의 도움이 없어도 読み에 있어 곤란함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 空気は爽然とした一種の涼味を含んで人の精神を爽にする。

(11) ◎ 彼方に悄然と坐つてゐる者がある。

(12) ◎ はつと顔を赧らめて、さもさも嬉しさに嫣然して起上らうとしたが。

위의 용례(10)~(12)는 개역에 나타난 「-然」이 결합된 형태의 한어 오노마토펬로 13語가 사용되었다. (10)~(12)의 「爽然」 「悄然」 「嫣然」은 각각 후리가나 「さば〜」 「しょんぼり」 「にっこり」로 대응하고 있는데 모두 고유어 오노마토펬이다. 이 외에도 대부분이 二葉亭四迷의 판단 기준에 의해 개역 원고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한어에는 반드시 고유어 오노마토펬를 후리가나로 취하고 있다. 「悄然」은 『浮雲』를 비롯한 二葉亭四迷의 다양한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고유어로 대응되었다.<sup>17)</sup> 「嫣然」 또한 마찬가지로 『あひゞき』 이전 작품부터 고유어 후리가나로 대응하고 있다.

17) 半沢乾一(198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浮雲』 『かた恋』 『浮草』 『期面影』 『平凡』에 나타난 「悄然」의 출현빈도수는 20회. 그 중 한자음 후리가나는 단 1회이며 19회는 고유어 후리가나.

(13) ◎ 自分はじぶん ぼうぜん茫然として立つてたみたが、やが躰はなたば ひろひろてワシリヨークの花束はんを拾上げて、の林でを野へ出た。

(14) ◎ 何位どのぐらねむ眠つてみたかはんぜん判然はんぜんしないが。

하지만 용례(13)(14)의 경우, 한어 오노마토편의 후리가나가 고유어 오노마토편이 아닌 한자음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茫然」은 『浮雲』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는데 명치20년에 발표된 제1편에서는 「ぼんやり」로 대응되었다. 하지만 21년 제2편부터는 한자음을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작품들에서 「茫然」는 음독(音讀) 표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이에 따라 『浮雲』 제2편 뒤에 집필이 이루어진 『あひゞき』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茫然」은 『漢語形容動詞辞典』에 「아무것도 모르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양. 실의에 빠져 정신이 흐리멍덩한 모양」이란 의미로 게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고유어 「ぼんやり」는 「희미하고 아련한 모양」이란 의미로, 등장인물의 복잡한 심정표현을 나타내기에 그 의미 영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용례(14)의 「判然」은 명치20년 초의 작품에서의 후리가나는 「はんぜん」이 우세하였으며, 명치29년 『あひゞき』 개역을 기점으로 한 후리가나는 「はんぜん」 혹은 「はつきり」로 병용된다. 하지만 명치40년대 이후 작품부터 「判然」의 후리가나 「はんぜん」은 점차 줄어들고 「はつきり」와 같은 고유어 후리가나 대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角岡賢一에 의하면 일본어가 차입된 시기의 중국어 오노마토편은 현재 중국어와는 어구성 방법이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래전 『詩經』시대부터 중언(重言)·첩운(疊韻)·쌍성(双聲)이라는 방법으로 많은 오노마토편이 생성되었으며, 그 중 일부의 오노마토편은 일본어로 차입되었다.<sup>19)</sup> 여기에서 중언·첩운·쌍성은 金田一春彦의 한어 오노마토편 분류법 중 「同じ語根を重ねたもの」「同じ子音の拍を重ねたもの」「同じ韻をもつ拍を重ねたもの」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이 중 같은 한자의 반복형인 중언형식을 이루는 한어 오노마토편만을 다루고자 한다. 『あひゞき』 초역에서 6語로 나타났으며, 개역에서 16語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양상을 용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5) ● 旁々の手を見れば、半はむき出して、

(16) ● 日は青々とした空に低く漂つて、

18) 번역작품 『かた恋』(명치29년) 2회 출현 모두 音読み, 신소설 『平凡』(명치40년) 8회 출현 중 6회 音読み.

19) 角川賢一(1993) 「日本語の「擬似オノマトペ」-日本語と中国語の接点-」 『オノマトピア』 勁草書房. p.175

용례(15)(16)은 초역에 나타난 중언형식의 한어 오노마토펜이다. 중언형식의 한어 오노마토펜의 한자음은 「AIAI」 「AUAU」 「AツAツ」 「ANAN」과 같은 어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旁々」와 「青々」의 한자음은 각각 「ぼうぼう」 「せいせい」의 어형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초역에 나타난 중언형식의 한어 오노마토펜의 모든 용례에는 読みに 대한 후리가나가 없었으며 이 또한 잡지 『國民之友』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7) ◎ 漸くおど／＼ をが めつき かほ みあ 榊々した拜むやうな眼付で面を視上げた。

(18) ◎ 恐々おそる／＼ ふる て だ なん しとこと 震へる手を出して、「たゞ何とか一言……」

개역에 나타난 중언형식의 한어 오노마토펜는 위의 용례(17)(18)과 같이 후리가나를 취하고 있다. 개역에서는 등장인물의 심정표현을 묘사하기 위해 「-然」형식의 한어 오노마토펜가 급증한 것과 같이 중언형식 또한 증가하였다. (17)의 「榊々」는 「おどおど」, (18)의 「恐々」는 「おそるおそる」로 고유어 후리가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본어 오노마토펜의 전형적인 형태 「ABAB형」으로의 대응이 16語 중 14語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小野基가 지적한 바와 같이 二葉亭四迷는 개역에서 언문일치 성립을 위해 후리가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이상, 二葉亭四迷의 번역 작품 『あひゞき』의 초역과 개역 원고를 대상으로 언문일치체가 서양 문학작품의 번역에 끼친 영향을 오노마토펜의 한자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오노마토펜의 한자표기는 초역에 비해 개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초역이 게재된 잡지 『國民之友』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國民之友』는 당시 교양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 전체적인 문장은 딱딱한 논설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자·한어를 적극적으로 다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후리가나 표기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二葉亭四迷는 초역 원고의 오노마토펜에 대해 복잡한 한자 표기를 배제하고 가나 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초역과는 달리 개역은 二葉亭四迷의 번역 작품을 모은 단행본 『片恋』에 게재되어 문체 및 표기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자유롭고, 나아가 개역 원고는 총루비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오노마토펜 표기에 있어 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셋째, 개역의 「燦爛」<sup>きら／＼</sup> 「茸々」<sup>むげ／＼</sup> 「煌々」<sup>きら／＼</sup> 「嫣然」<sup>にっこり</sup> 등과 같은 오노마토펜에 나타난 대부분의 한자는 본래 중국어 오노마토펜 조어법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어 오노마토펜이 다용된 것은 등장인물의 심정표현이나 자연현상을 세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표의문자인 한자를 사용한 것이다.

넷째, 『あひゞき』의 초역과 개역 원고에 나타난 한어 오노마토펜의 후리가나 대응에 관해서 초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역에서는 대부분 고유어로 대응되었다. 하지만 양(兩)원고에 동일하게 사용된 「空々寂々」 「得々」 「傲然」 「茫然」과 같은 소수의 예에서 후리가나는 한자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역 원고 집필시기부터 국민어로서의 자격을 얻어 일본어화 되었다고 판단한 二葉亭四迷의 언문일치에 대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あひゞき』의 개역에서 한자표기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한어 오노마토펜의 다용이라고 할 수 있다. 二葉亭四迷는 한어 오노마토펜를 사용하여 문장의 정밀한 묘사와 후리가나로 대응되는 고유어 오노마토펜를 통해 언문일치를 성립시키고자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었다.

## 【参考文献】

- 나공수(1997) 「『あひゞき』『めぐりあひ』の改訳の意義-文語から口語への移動-」 『人文科学研究』 第26輯
- 박영숙(2012) 「日本の言文一致運動と実現-文字改良論と『浮雲』-」 『東北亞文化研究』 第31輯
- 이묘희(2009) 「近代翻訳小説における漢字の考察-『あひゞき』『めぐりあひ』を中心として-」 『人文学研究』 第76輯
- 황규삼(2005) 「明治期のオノマトペに用いられた漢字表記-『社会百面相』を中心に-」 『日語教育』 第45輯
- 현영미·이경규(2012) 「二葉亭四迷『新編 浮雲』에 나타난 오노마토펬의 한자표기에 관한 일고찰」 일본어교육학회 제61집.
- 天沼寧(1974) 「擬音語・擬態語概説」 『擬音語・擬態語辞典』 東京堂出版
- 金田一春彦(1978) 「擬音語・擬態語概説」 『擬音語・擬態語辞典』 角川小辞典
- 『あひゞき』 初訳(『二葉亭四迷明治文学全集』, 筑摩書房)
- \_\_\_\_\_ 改訳(『片恋』 春陽堂,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 天沼寧(1986) 「擬音語・擬態語の漢字表記」 『大妻女子大学文学部紀要』 第18集
- 新井理恵(2010) 「近代オノマトペの表記の流れについて」 日語日文学研究 第74輯
- 太田紘子(2000) 『二葉亭四迷『あひゞき』の語彙研究』 和泉書院
- 小野寺学(1998) 「近代における二字漢語「-然」の展開と定着」 言語科学論集2号
- 小野基(1963) 「翻訳文における言文一致について-二葉亭初期翻訳文章の分析-」 『国語教育研究』 第8集
- 角川賢一(1993) 「日本語の「擬似オノマトペ」-日本語と中国語の接点-」 『オノマトピア』 勁草書房
- 坂倉篤義(1971) 『講座国語史第3巻-語彙史-』 大修館書店
- 佐藤友紀(2006) 「明治期における擬音語・擬態語の漢字表記」 『日本アジア研究』 第3号
- 中里理子(2005) 「オノマトペに見る漢語の影響」 『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 第25巻
- 中村光夫編(1971) 「新編 浮雲」 『二葉亭四迷・嵯峨の屋おむろ集』 明治文学全集17 筑摩書房刊
- 平弥悠紀(2001) 「現代語における擬音語のタイプについて」 『同志社大学留学生別科紀要』 創刊号

## 要 旨

本稿は日本明治期の代表的と言われる言文一致体翻訳小説である『あひゞき』に見られるオノマトペにおける漢字表記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あひゞき』は二葉亭四迷により明治21年と29年、二度に渡って翻訳されており、両稿原典に忠実にとの覚悟で訳したと二葉亭自身が触れている。二葉亭四迷は明治39年、「余が言文一致の由来」で言文一致は「国民語の資格を得ていない漢語、日本語にならぬ漢語はすべて使はない。」といい、文章の一致だけではなく、語彙使いに対しても二葉亭自分なりの規則を提示している。『あひゞき』の旧稿新稿の対照的な文末表現に関する先行研究は数多く行われているが、旧稿新稿における漢字表記の研究はまだ注目されてない。そこで本発表では、口語体であるオノマトペにおける漢字表記について旧稿新稿を対象とし、その相違点を調べてみたところ、次のような結果が現われた。

まず、オノマトペの漢字表記は旧稿より新稿で大きく増加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旧稿に漢字表記率が大幅に低い原因として旧稿を納めた『国民之友』の影響であると言える。

『国民之友』は当時教養層を主に対象した雑誌であったため、漢字・漢語を積極的に使っている割には振り仮名の使用には極めて制限的であった。そのような表記条件に従い、旧稿のオノマトペに対して複雑な漢字よりは仮名表記を好んである。

新稿は二葉亭四迷の翻訳作品集である『片恋』に掲載され、文体および表記が自由で、その上すべての漢字に振り仮名が付く総ルビであったため、オノマトペの表記において漢字・漢語を積極的に使っていたことが考えられる。

また、新稿の「燦爛」<sup>きら／＼</sup>「茸々」<sup>むじゃ／＼</sup>「煌々」<sup>きら／＼</sup>「嫣然」<sup>にっこり</sup>のようなオノマトペは本来、中国語のオノマトペ造語法に起因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な漢語オノマトペが多用された理由は登場人物の心情表現や自然現象をより細かく描写するために、表記文字である漢字を使っているのであろう。それから、二葉亭四迷の言文一致は振り仮名を排除しては成り立たないとも言える。

キーワード：オノマトペ、漢字、表記、漢語、言文一致、振り仮名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